

#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解體復原略報

洪 思 俊

江原道平昌郡珍富面東山里 月精寺境內 所在 國寶第四八號 月精寺八角九層石塔은 國寶로 指定할 만치 塔婆로써 우수한 各部가 갖추어져 있는 韓國의 唯一한 石塔이다. 寺刹側 記錄을 본다면 月精寺創建이 新羅善德女王十四年乙巳(六四五A·D)에 慈藏律師가 創建하고 同時에 八角十三層石塔(基壇部를 石塔의 層으로 誤認한)에 佛舍利三十七粒을 奉安하였고, 統一新羅에 들어와서 聖德王이 月精寺를 重修하였으며, 高麗朝에 와서는 高麗王建太祖六年癸未(九三三A·D)에 信孝居士가 重建하고, 高麗忠烈王二年丙子(一一七六A·D)에 信義禪師가 三創한 것으로 되어 있다. 朝鮮朝에 와서도 李太祖元年壬午(一三九二A·D, 壬午는 癸酉의 誤)에 有緣大師가 四創하였고, 定宗二年庚辰에는 太祖가 幸行하여 連谷縣土地二十結을 特賜하여 上院寺에 屬한 寂滅寶宮의 香火資를 만들었다 하였으며, 肅宗十年 甲子(一六八四A·D)에 清河禪師가 五創, 英祖二十年 甲子에 回祿된 것을 朝家에서 英祖二十八年壬申(一七五二A·D)에 六創, 純祖三十二年壬辰(一八三一A·D)에 泳潭·仁坡·靜龜 諸禪師가 七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本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新羅善德女王十四年乙巳 慈藏律師入此山 奉安佛頂骨于中臺寂滅寶宮 因創月精寺 建八角十三層石塔 奉安佛舍利三十七粒……

- (2) 新羅聖德王入此山 重修月精寺……
  - (3) 高麗太祖六年癸未 信孝居士重建
  - (4) 同忠烈王二年丙子 信義禪師三創
  - (5) 李朝太祖元年壬午 有緣大師四創。 定宗二年庚辰 太祖幸行特賜連谷縣土地二十結 爲寂滅香火資
  - (6) 肅宗十年甲子 清河禪師五創
  - (7) 英祖十年甲子 回祿自朝家 重建 同二十八年壬申 記功 純祖三十二年壬辰 泳潭·仁坡·靜龜 諸禪師七創
- 以上과 같이 月精寺創建이 新羅統一前에 慈藏律師의 開基와 高麗·朝鮮朝末期에 이르는 동안 一、一八七年間 遺物로써 豊裕한 出土物이 남아 있어야 되었으나 지금 當寺周邊에 散在한 瓦類를 調査하면 最高로 올라간다는 瓦當에 高麗代를 벗어나지 못하며 八角九層石塔 亦是 寺傳에 新羅云云하나 今春 解體 때에 前에 奉安된 佛像을 보아서도 石塔自體가 羅代에는 올라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出土되는 瓦當과 石塔樣式에서 볼 수 있는 手法 等과 記錄과는 差異가 너무나 밀다 하겠다. 自來로 寺院에서는 寺刹建立年代를 될 수 있는 限 上古에 올라서는 點이, 어느 寺刹記를 보더라도, 있는 것이 病弊라 아니할 수 없다.
- 萬若 月精寺八角九層塔이 新羅時代 建造物이라 한 적에 現存한 慶州地方의 石塔들은 三層 또는 五層에 方形石塔이 多數로 典型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外形樣式에도 相違된다 할 것이다(勿論 例外도 있다).
- 여기에 附隨해서 月精寺 名稱에 對해 寺僧의 말을 들어 보면 五臺山에서 東臺에 該當되는 滿月山下에 水精菴이 있다가 후에 月精寺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는 五臺山 名稱은 東·南·西·北·中央의 山峰이 있어서 東臺에 滿月山, 南臺에 麒麟峯, 西臺에 長嶺, 北臺에 象王, 中臺에 智爐라는 五峯이 있으며, 부처로는 東에 觀世音, 南에 地藏, 西에 大勢至, 北에 彌勒, 中央에 釋迦의 舍利를 奉安한 寂滅寶宮이 있듯이 五臺에는 거기에 該當되는 佛刹이 있었다는 것이다. 東國輿地勝覽 江陵山川條 五臺山頂에도 五臺의 山名이 前記와 같이 있다. 寺僧의 말처럼 東臺 滿月山下 水精菴에서 月精寺가 命名되었다 하면 江陵의 佛宇條(東國輿地勝覽)

에는 月精寺와 水精庵이 別個의 寺刹로 記錄된 것이 疑問이다.

二

月精寺八角九層石塔을 解體에 이른 것은 石塔全體가 東北方으로 傾倒 하였고 長久한 歲月에 風磨雨洗되어 風化作用이 極甚하여 屋蓋石이 各層을 通해서 完全한 것들이 적고 破缺된 것이 많았으며 八角石塔의 隅(隅)에 달렸던 風澤이 三分之一以上이 損失되어 美觀上 불똥이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六,二五動亂에 軍人들의 射擊의 的이 되어 相輪部의 金屬 龍車나 寶珠가 銃彈에 맞아서 破裂되어 있고 寶蓋도 八角에 八角만이 겨우 保存되고 餘他花紋들은 脫落되었음에서 居住民의 말이 많았었고 이곳을 探訪하는 人士의 입에 오르내리는 데서 그 動機가 된 것 같다.

그러면 解體當時의 月精寺現況을 一瞥한다면 前記한 바 있는 七創의 建物은 六,二五時에 燒失되고 現張萬化(當時四九歲)住持의 힘에서 新建한 大雄殿(前面五間 長一八·二五m 側面四間一四·六〇m)이 八角九層塔 北側에 丹青도 산뜻한 모습에 보이고 石塔 앞에 있는 夜光菩薩寺記에는 藥王이 東側으로 十度可量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僧舍와 客堂을 兼한 寮舍東方八〇m에는 四天王門이 江陵客舍門을 모방하여 新建되었는데 아직 丹青을 못한 채 門三間 中央間의 左右에는 各二軀의 四天王身을 造塑하는 中途이었다.

全高一五·一五m의 이 八角九層塔은 一九七〇年 一〇月三日에서 今月 八日까지 六日間에 解體와 同時에 實側을 施行하였는데 工事監督은 檀大博物館長 鄭永鎬 教授가 담당하고, 實側은 文化財專門委員 洪俊俊氏의 指導로(助手는 檀大博物館研究員 이호영) 진행되었으며, 解體工事は 長韓建設會社(代表 鄭復永)가 맡았었다. 이 解體한 相輪部는 別途로 寺刹에 保管시키고 花崗石製 塔身部와 基壇部等 石材들은 石塔位置에서 四方廣場에 一括保存措置를 取하고 翌年(一九七二)에 組立을 計劃한 것이다.

三

解體에 앞서 十月三日 午前 一〇時에 佛式에 의한 儀式이 舉行되었는데 解體作業을 無事히 해달라는 石塔앞에서 告祝文을 마련하여 張住持의 朗讀이 있었고 佛信徒 및 作業에 從事할 人員이 同參하였던 것이다. 石塔의 位置는 現大雄殿 南面 出入門 門턱에서 石塔中心點까지가 一五·七五m 인데 石塔이 大雄殿前面 柱間橫線에서 佛刹에 東側으로 一七〇m가 扁在하여 있다. 이는 石塔의 位置가 大雄殿 出入正門에서 九〇度の 直角線上에 있어야 할 것이나 現大雄殿을 新築할 적에 그만큼 石塔과의 直角을 目測으로 한 大雄殿建物地를 定하고 新建하는 데서 오는 誤差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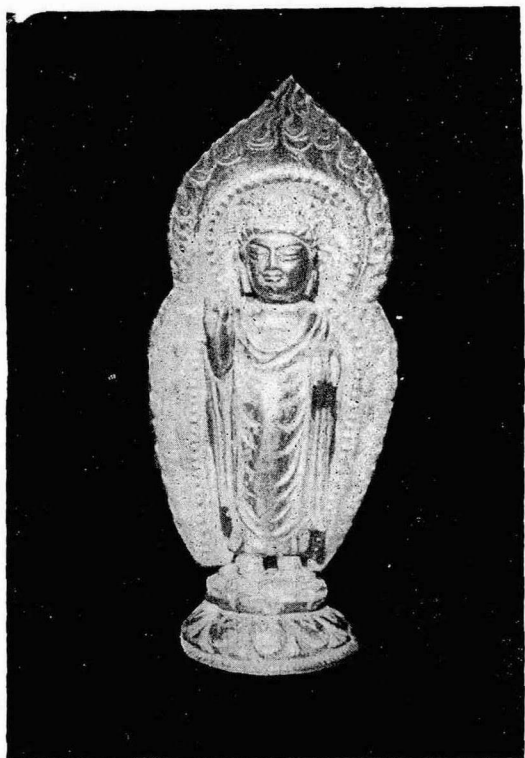


圖 1. 銀製鍍金 如來立像

解體作業은 第一日에 相輪部全體와 第九層에서 第七層屋蓋石까지 하였으며, 第二日은 第七層塔身에서 第三層蓋石까지 作業하였다. 이날 第五層屋蓋石上面 中央의 方孔內에서는 南面에 있는 銀製鍍金立佛像이 發見되었다. 第三日은 第二層塔身에서 作業을 마쳤다. 第一層屋蓋石을 試舉

해보니 一層塔身上面에 舍利奉安孔이 圓銅板으로 덮고 四方에 鐵釘이 있는 것을 보아 舍利裝置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第四日은 第一層蓋石을 除去하고 塔身上面의 銅蓋板을 들고 佛舍利等一括品을 住持室에 옮긴後에 第一層塔身과 基壇部의 上·下甲石 中臺 下臺 및 蓮華臺石과 眼象石 地臺石 등을 解體하고、第五日은 青銅盒內의 遺品을 調査하며 塔作業은 塔址의 周圍를 發掘하였다. 地下五〇cm의 塔址下에는 塔重心을 받기爲한 長石 一個가 南北으로 길이 一·四七m 中間幅 八四cm의 巨石이 놓였고 左右에는 이보다 若干幅이 작은 長石을 配置하였으며 이 三個長大石의 一m 四方相距에는 두 손으로 드릴 수 없는 雜石의 外廓石이 있었던 것이 確實하나 근데 근데 빠져나가서 몇 개가 發見되지 못하였다. 第六日은 相輪部에서 塔身部 基壇部 實測에 着手完了하였다.

以上이 六日間의 解體와 實測作業인데 實測에서 살펴본 細部와 發見 遺物等을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第一日에 解體作業은 모는 準備關係上 午後二時 四〇分에 비로소 着手開始하였다.

#### (1) 相輪部

上部에서 鑰製의 鉢 寶珠 鑰管(竹節과 같음) 龍車 鑰管 水煙 鑰管 寶蓋 鑰管 順序로 札柱에 끼어 連結되었고 九個 寶輪의 隔間에는 九個 鑰管이 亦是 반어 있었으며 仰花는 淡紅色 花崗岩製인데 八瓣蓮花가 上下層으로 半球周圍에 陽刻配列되어 있는데 治石이 매우 精密하여서 八角石塔의 治石솜씨와는 越等하게 다르다. 이 仰花石 밑에 있는 覆鉢은 三層八角臺上에 半球를 花崗石製一石으로 만드려졌는데 治石面에서 보면 仰花石治石솜씨에는 미치지 못하나 比較的 精誠을 드린 感이 었 보였다. 以上 말한 相輪部의 札柱心鐵은 水鐵製 全長 四·三m의 길이인데 下部에서 上端에 올라갈수록 漸次가늘게 되어졌고 札柱는 石塔의 九層에서 八層蓋石下까지 내려가서 鐵片으로 固定시키고 있다. 그러한 關係로 相輪部 解體는 鑰製의 鉢以下 寶蓋까지 一一히 위로 올려 뽑아내고 寶輪以下 第九層塔蓋石과 塔身 및 第八層蓋石까지를 한꺼번에 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相輪部의 當時狀態는 石塔建立時 製作品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며 오직 寶蓋만은 數次에 걸쳐서 修理에 修理를 거듭한 痕跡이 寶蓋의 八角에 附着시킨 透彫牡丹花形이 떨어져 나간 花形殘片金屬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六、二五動亂時 軍人의 銃彈에 破損되었다는 部分과 年久歲深해서 自然損失된 部分을 살펴보면, 먼저 寶珠一面에 斜線으로 七cm可量이 銃彈에 맞아서 깨어졌고 四個 鑰管들이 管口 或은 管身에 亦是 銃彈으로 因해서 破裂되었으며, 龍車도 下孔部分이 破裂되고 水煙도 四羽의 中孔管下口가 銃彈에 破損되었다. 寶蓋는 八角八面에 七角에는 牡丹花透彫金屬이 떨어져 나가고 東南方一角만이 牡丹花透彫가 原形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도 銃彈을 받은 흔적이 있으나 極小에 그치고 七個花形은 風雨에 의한 損失로 보았다. 여기에 다시 附添할 것은 水煙 寶蓋 九輪部의 形態를 말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水煙은 十字로 羽形을 달았는데 四枚羽形이 中央에 札柱에 끼우는 鑰管에 附着하였으며 羽形面에는 唐草紋을 透彫하고 가장자리에는 十個小圓을 亦是 透刻하여졌다. 四個羽形面의 紋樣은 同一한 唐草紋을 가지고 있다.

寶蓋形狀은 八角에 花形을 달은 八面으로 되어서 언뜻 보면 마치 天蓋 없는 幼兒冒子를 聯想하게 된다. 寶蓋의 垂直八面이 同一한 文樣을 가지고 있는데 그 一面을 보면, 下面에는 左右二區에는 忍冬紋을, 中間과 兩隅에는 雲文을 配置하였으며, 上面에는 橫으로 六個蓮紋이 等間으로 配置되었는데 그 蓮花瓣은 五瓣에 小圓의 子房으로 되었다. 그리고 仰面에는 變形蓮花瓣紋이 橫으로 羅列되었고 그 上部中央에는 中間에 山形과 그 左右에 小雲文과 角마다 大雲文이 있고 그 雲文上에는 牡丹花形이 달려 있는데 牡丹花形이 透彫라면 仰面과 垂直面의 文樣은 全部 壓出되어 文樣을 露出시키고 있다. 臨時로 寶蓋를 만들기爲한 壓出틀(機)에서 製作된 것이 아니고 相輪만드는 治匠이 이러한 寶蓋틀이나 水煙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思料된다. 이 寶蓋를 札柱에 달기爲해서 八角에서 弧形鐵이 中央의 札柱孔에 連結되고 札柱孔에 接하는데는 鑰製의 八葉蓮花形 二枚를 엮바꾸어 弧形鐵 밑에 끼었는데 이것은 地上에서 寶蓋內를 보는 것을 基準하고 製作한 것 같다. 그리고 寶蓋

垂直面下端에는 雲文下緣・忍冬文下緣에 各小孔이 있어서 全寶蓋에는 三十二個小孔이 있는데 아마도 懸垂한 裝飾具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現品이 어떠한 것인지 推測할 수가 없다. 寶蓋內의 弧形鐵에는 角隅마다 小形風鐸이 있었는듯 圓孔鐵이 附着되어 있으나 解體時에는 한 개도 殘存하지 않았고 補修時 新造하여 附着하기로 하였다. 寶輪은 花崗石製로 알파한 두께의 圓形이 九個가 等間으로 上小下大하여서 꿰어졌으며 이 圓輪外邊面에는 八處에 鑲製八瓣蓮花形을 二枚로 重疊하고 圓輪에 鐵釘으로 固着시키고 있다. 이 花形이 九個輪에 縱으로 八列이 秩序있게 配列되어 있어서 外觀의 美를 한층더 하고 있다. 仰花石과 覆鉢石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 (2) 塔身部

다음에 第九層에서 第一層까지의 各個蓋石과 各個塔身石들을 一瞥한다면 塔身과 蓋石의 높이와 直徑이 最下層에서 最上層까지 全體가 下에서 上에 이르기까지 漸次로 縮小되면서도 均衡이 維持되었다.

屋蓋上面인 落水面은 八角의 隅棟이 弧形으로 兩기가 높아 있고 上層塔身과 下層屋石에 붙쳐 만들어졌으며 簷牙는 內側으로 若干 斜面이 되어서 雨水가 안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었다. 屋蓋石 裏面은 水平 簷牙인데 內側에 홈이 八角을 沿하여져서 亦是 滲洩水를 防止한 意圖이다. 홈안쪽에는 上下에 直角 中間地가 弧形이 되어서 마치 木造建物の 斗拱을 상정한 것 같다. 八角屋蓋石 한層만 볼적에는 木造八角亭子 같은 느낌이 풍기는데 石造로 된 關係로 木造보다 多少 細穢가 不足하지만 層마다 八角建物を 九層까지 重積한 木造建物感이 든다.

塔蓋石에는 二片一蓋石과 單石으로 된 것이 있는데 一層蓋石 南北으로 二片, 三層蓋石 東西로 二片, 四層塔石이 南北二片이며, 餘他는 一石으로 되었다. 다만 八層蓋石과 九層塔身이 上一石으로 上塔身下蓋石이다. 裝嚴에 있어서 風鐸이 八角(鼻)마다 달려있는데 種類는 大中小三種이 있어서 第一層—第三層에 大形風鐸, 第四層—第六層에 中形風鐸, 第七層—第九層과 屋蓋內側에는 小形風鐸을 달은 것이다.

風鐸이 現存한 것은 總八〇個中에서 不過三分之一에 不過하였다. 그

리고 風鐸 모양은 上挾下廣 하였으나 腹部가 若干 브르고 八菱面이면서 扁鐸이다. 이 風鐸頂에는 中央에 水鐵로 매다는 고리가 通貫하여졌고 風鐸內에는 十字形鐵이 있으며 그 아래에 風鐸舌이 杏葉形으로 바람을 받게 되었는데 風鐸과 舌은 鑲製로 되었다.

石塔蓋石의 破損은 上下層石에 어느 것이나 破裂되어 脫落한 蓋石・龜裂을 가진 것이어서 蓋石全體가 不完全하다. 그 中에서 가장 全體塔에 美觀을 損傷시키는 蓋石四個만을 新造하기로 決定하였는데 그 對象은 第九層蓋石 第六層蓋石 第二層蓋石 第一層蓋石인 바 모두 五個石이다.

또한 塔身形態는 八면에 隅柱形을 陽刻하였으나 오직 第一身石에만 八面中에 東・南・西・北 四處에 長方形(縱二八・五cm, 橫一三cm, 深九cm) 龕室이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 塔身에는 單石製와 二石製가 있어서 第一塔身이 舍利孔을 北東側에 비껴서 二石이고, 第二塔身이 東西二石, 第三塔身이 南北二石等 三個塔身인데 이들 塔身은 初層—三層까지이고 餘他 四層—九層은 單石으로 되었다. 塔을 組立함에 運石의 不便을 생각하고 下部層만을 重量도 생각해서 二石으로 治石한 것이 아닐가 하며 四層에서 九層까지 올라가면서 一石塔身으로 합은 石材가 적고 運積이 容易함을 감안하여 治石된 것으로 推測되었다. 塔身에서 發見된 遺品에 있어서 第五層蓋石上面에서 나온 立佛像과 第一層塔身上面의 舍利孔에서 發見한 遺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 石塔內 發見 遺物

第五層蓋石上面에서 銀製鍍金如來立像이 南面해서 奉安한데 對해 어떠한 理由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하필 一에서 九의 數 中間 五에 奉安한 데에는 佛敎의 敎理나 立佛의 佛像과의 關聯이 있지 않음이 생각되며 우연한 一致라고 보아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 立像이 安置되었던 孔穴의 治石은 精密하다고 볼 수 없는 方形孔인데 廣이 一三・二—一四・二cm 幅이 一六cm—一六・五cm 深一六cm에 立佛像을 安置함에 그친 것이다. 孔穴蓋板은 銅板인데 四方이 約一・九・五cm 厚〇・二cm 네귀에 鐵釘으로 固着시켰다. 이 銅板은 腐蝕이甚해서 開板할 때 부스러졌으며 孔內에는 立像以外 附隨遺品은 없었다.



圖 2. 石塔內 發見遺物

幅 二 cm 胸幅 一·二 cm 이고 臺座는 單葉蓮花가 의 蓮座上에 一段의 八角段 위에 直立하였다. (光背 高 八·五 cm 幅 四·五 cm) 과 連結되어 立佛後側에 附着되었다. 光背의 周緣에는 火炎紋이 彫刻되었으며 立佛쪽 身光頭光光背에는 도 드라진 連珠紋線으로 둘러 있다. 立佛相好는 端雅한 氣風에 圓滿한 風 度이고 頭上에는 螺髮 肉髻를 表現하였는데 肉髻는 작은 편이다. 通肩 衣에 胸部以下 法衣의 衣褶은 橫으로 半弧를 그리면서 발목까지 내려졌 으며 右手는 中指와 拇指를 連하였으되 手掌은 앞으로 보이고 左手는

이 立 佛像에 對해서 살펴 보 면 孔底 面에 보 를 잘았 는데 남 아서 만 질 수가 없었다 하며 立 像은 臺 座와 光 背를 합 한 總高 九·七 cm 의 佛像 으로 身 高 六·二 cm 肩 二 cm 肩 直徑 一·八 cm

팔꿈치에서 팔목까지 佛身에서 水平으로 내려 있는데 中指와 拇指를 잡 았으되 手掌은 위로 보이고 있다. 兩足 五指가 실날처럼 섬세하나 발의 모양은 分明하였다. 이 立佛像은 金色이 燦然하고 缺損된 곳이 없어서 奉安當時의 그 모 습이 그대로 保存된 것 같은데 時代는 一〇世紀頃의 佛像으로 推定되었 다.

다음은 第一層塔身上面에 奉安한 舍利孔과 舍利具 一拈品을 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舍利孔을 보면 天蓋板이 銅製圓形인데 直徑 五·三 cm, 厚 一 cm 로 舍利孔을 덮어 密着시키기 爲해 四處에 鐵釘으로 固定하여 있 다. 北에 있는 兩鐵釘間隔은 二·八 cm, 南은 兩鐵釘間이 二·八·五 cm, 東의 兩鐵釘間隔 二·六 cm, 西의 兩鐵釘間은 二·七 cm 이다. 이 天蓋銅板 裏面은 靑綠銹가 一面에 있었다.

舍利孔은 塔身上面 中央에 圓形孔을 뚫는데 直徑이 三·二 cm 深 一·九 cm 이며 舍利孔을 東北側에서 약간 비껴 塔身二石을 接合하여 塔身을 造成 하고 上面의 接合한 左右에는 銀裝을 박아서 不動을 取하였으되 西南方 에도 銀裝을 한 것은 製作當時 龜裂이 있었던 것을 알겠다. 舍利孔 內部 는 東北側下 二個石이 接合한 곳을 强灰로 작은 틈을 발라 막았고 西南 側에도 금이 간 곳을 强灰로 亦是 막았으나 이 强灰膜질을 한 것이 堅 固하지는 않았다.

舍利孔內 遺物은 아래와 같다.

- 1, 銅函 一個 上蓋 高 五·三 cm 直徑 一·八·三 cm, 下函 高 六·三 cm, 直徑 一·八 cm
- 2, 靑銅鏡 四個

A, 寶相花緣雙龍文鏡

直徑 一·九·四 cm 厚 〇·五 cm

B, 波文鏡 直徑 一·一·四 cm 厚 〇·四 cm 鏡邊이 薄

C, 四龍有銘鏡 直徑 一·一·九 cm 外緣厚 一·三 cm 鏡邊內側圓周에

陽刻銘文이 있는데 「光流素月 質稟玄精 澄空鑿水 照洞凝清 結古 永固 鑿此心靈」

D、無文鏡 直徑 一一·五 cm 厚 〇·三 cm

3、四角黃色香囊 一個 縱五·五 cm 橫五·四 cm 香囊은 兩側面에 靑은 紫色絲로 文樣을 刺繡하였고 兩繡文布를 合한데도 繡絲로 接合하였다.

4、銀盒 一個

鷄卵大의 銀盒은 打延製로 上蓋頂이 直徑 四·三 cm 盒口徑 八·九 cm 높이 四·六 cm 厚 〇·五 cm 下盒의 內舌幅 〇·六 cm 높이 五·七 cm 이다.

5、金銅方形函 一個 : 일종의 香盒으로서 上蓋와 下函外表에는 四天王像을 二軀씩 細刻하였는데 身長이 四·二 cm 幅二 cm 이며 左右兩便에는 仁王像이 一軀씩 細刻되었다. 이 函의 長이는 四·六 cm × 幅四·三 cm 인데 上蓋 高 〇·八 cm 下函 高 〇·八 cm 이나 下函의 內舌이 若干 있어서 上下가 잘 맞도록 되었다.

6、水晶舍利瓶 一個

外形이 호로瓶形이고 瓶內는 直徑 〇·五 cm 의 圓孔이 垂直으로 뚫여 있다. 外表의 瓶高 五·四 cm 瓶口徑 一·八 cm 瓶頸徑 一·六 cm 瓶腹徑 三·三 cm 瓶底直徑 一·五 cm 瓶마개는 香木으로 密閉하여졌는데 水晶瓶高와 매개를 合한 高이는 六·九 cm 이다.

7、全身舍利經軸 一個

이 陀羅尼經은 楮紙에 墨書한 經軸인데 表面에 「全身舍利經」이라 墨書(字徑 〇·六 cm) 하였으며 褐色 끈으로 經軸中間을 매었다. 楮紙는 삭어서 손을 뉘 수 없으므로 內容文字를 把握하지 못하였다.

8、其他 木香 粉香 腐錦襪

9、水晶瓶內에는 淡紅色舍利 十四顆가 檢出되었다.

10、이 밖에도 紫色香囊은 터져서 粉香이 銅函內에 나와 있었다.

이 一括品이 裝置된 狀況을 보면 塔의 舍利孔內에는 銅函을 넣기 爲해서 袈裟(表襟는 細布 內襟는 밭이 굵은 明紬)로 靑銅函과 函底에 寶相花緣雙龍文鏡一枚를 받쳤고 函東側에는 無文鏡一枚, 北에 四龍有銘鏡一枚, 西에 波文鏡一枚 등을 세워서 香木大小片(가장 큰 香木長 一一 cm

幅 五·五 cm 과 香木片 等 一合程度)을 같이 싸서 넣었던 것이나 襟가삭아서 形態를 알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多年間의 塵埃가 投入되어서 襟에 쌓던 香木과 塵埃가 函을 열어 볼 때에는 混合되어 있었다.

靑銅函을 다시 열어보니 中央에 銀製函과 周圍에 紫色香囊에는 香粉이 들어 있고 그 周邊에서는 香木(焚香에 適當한 小片), 병주머니에는 香草가 들었던 것이나 散布되어 香氣가 풍기었다. 그리고 銀函外에는 四角形黃色香囊(香木이 들어 있음) 一個와 金銅方形函(香片이 들어 있음) 一個 등이 內包되어 있었다. 다시 純銀函內에서는 水晶舍利瓶과 「全身舍利經」이라 墨書表題한 經軸이 發見되었다. 이 舍利孔內에 있는 모든 形形色色의 一品一目的是 當時 佛信徒의 精誠어린 獻納品인 것을 알겠고 平素 使用하던 物品임을 짐작하였다.

月精寺八角九層에 奉安된 舍利에 對해서 寺院側에서는 三國이 鼎立한 新羅時代 慈藏律師가 唐에서 齊來한 釋迦舍利로 認定하는 것이나 그러나 月精寺藏의 五臺山月精寺事蹟 奉安舍利開建寺庵第一祖師傳記를 보아도 釋迦舍利라는 明記가 없고 다만 舍利 三十七枚를 塔心에 奉安云云 하였고 그 挾注에는 優婆塞多舍利塔이라고 今傳하나 잘못이라 하였다.

因創月精寺 建十三層塔 奉安舍利三十七枚於塔心 今傳優婆塞多之舍利塔者 誤也. 出元曉所撰傳.

그리고 信孝居士親見五類聖事蹟에서는 世尊舍利三十七枚를 八面十三層石塔內에 安置한 것이 있고 그 挾注에 通度寺戒壇記와 事林廣記에도 보인다. 는 것이다.

庭中有八面十三層石塔內 安置世尊舍利三十七枚 出通度寺戒壇記 事林廣記也(一九〇六年 光武六年壬寅中新騰書本)

그러나 朝鮮金石總覽下 月精寺重建事蹟碑文에서는 八角九層塔에 奉安한 舍利는 優婆塞多尊者의 舍利라고 明記되어 있다.

...庭有石塔八面九級內安優婆塞多尊者舍利. 鳥淮不敢栖集其上 至今徵之爲畢事...

(崇禎再甲申後四十九年壬申(一七五二年) 六月日 通政大夫前兵曹參知 李彙晉述)

距今二百餘年前부터八角九層에 奉安한 舍利는 優婆塞多尊者의 舍利로 傳하는 同時에 塔도 同尊者의 舍利塔인 것을 光武年間에 이것을 否認하고 口傳으로만 慈藏이 齎來한 佛舍利라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 四、基壇部

基壇은 八角九層의 높고 華麗한 品에 比해서 重厚堅實하고 미듬직한 感이 있다. 特히 上下基壇에 各二重甲石을 겹드려 놓아서 莊重한 視感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基壇石에 地臺石은 튼튼한 實感이 나지 않는다.

第一層塔身을 받고 있는 上基壇第一甲石은 一石인데 直徑이 二·一〇m이며 八角에 兩角間 길이가 均一하지 못하고 各面마다 달라서 最短은 八八cm 最長은 九一cm가 되며 높이 一三cm에 上面에는 二cm의 塔身과 임이 붙고 下底에는 內曲되어서 上基壇 第二甲石을 누르고 있다. 上基壇 第二甲石은 四片으로 되며 八角을 構成하여 있다. 直徑 二·五m에 높이 三五·五cm인데 上基壇第一甲石의 兩角面의 角에 따라 相異한 值數와 같이 最短은 一·〇六m ~ 一·〇七m이다. 四個石으로 八角을 만들음에서 各石을 相接한 이듬에는 銀裝으로 連結하여졌다. 形態는 上面에 五cm의 받침 下底에 二·五cm의 과임을 하여서 上下甲石의 區分을 하여 있다.

다음 上基壇 中石도 八角인데 四枚石으로 되었으며 直徑 一·九五m에 높이는 五八cm 各面兩隅에는 隅柱形을 나타냈고 中石各面幅이 亦是 不均하여 最短幅 八七cm 最長幅이 九九cm이다. 中石上面에는 四石을 接合시킨 四處에 銀裝을 끼었는데 두 돌이 이어진 곳에는 진흙과 強灰를 混合하여 안으로 발라 있고 甲石이 모인 中央空間에는 진흙과 大石을 넣고 있다.

下基壇第一甲石은 그 形態가 上基壇第一甲石과 類似하나 直徑이 二·五m 높이 二九·五cm이고 兩角間이 幅員은 九八cm ~ 一m이다. 四枚花崗石을 八角으로 造成하였는데 接石部에는 銀裝을 使用하지 않고 있으며 四枚石의 中央空間은 大石을 넣고 大石周圍에는 흙으로 다지었다.

下基壇第二甲石은 直徑 二·六五m 높이 四四cm인데 八角上面의 沿邊 端에는 重瓣蓮花紋으로 八邊을 裝飾하였다. 이곳도 四枚花崗石을 接合

해서 八角이 되었는데 中央空地를 土積하고 있다.

다음 下基中石은 直徑 二·三m 높이 二二cm에 八角의 各面에는 眼象이 一面二區씩 있다. 北側의 眼象三區가 破損되었음으로 新造가 있어야 하겠으며 中央空地에는 雜石과 진흙으로 充填하여졌다.

地臺石은 四枚花崗石으로 八角을 構成하였고 各面이 接合된 곳에 銀裝을 박아 있는데 腐蝕이 甚하였다. 直徑 二·八二m 높이 三九cm인데 東北隅가 沈沒하여져서 全體塔이 그 方向으로 三度可量 傾倒하여 있다. 이 地臺石上의 흙을 除去할 때에 圓板갈피에 꽂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鍮製長 五cm×幅 三cm의 鍮板金屬이 出土하였는데 前面에 佛像, 後面에 「卷八」의 銘이 있음을 添記하여 본다.

以上이 解體와 實測에 의한 月精寺八角九層塔의 大略이다.

解體後 復元組立이 繼續되어야 할 것이나 여러 事情으로 因해서 翌年 一九七一年 九月 二十六日 ~ 今月 三十日과 今年 十月 八日과 十一月 十一日 ~ 今月 二十三日 全 一九九日에 걸쳐서 石塔을 組立하였는데 破損된 石塔材를 新造 補完하고 金屬 相輪部의 缺欠도 修理와 不足한 風鐸等屬을 新修補完하는데 時日이 많이 걸린 것이다. 組立에 있어서 두 번이나 空間을 갖게 된 것은 寺院側에서는 發見遺物을 全部 原狀復古하는 것을 鄭教授의 說得에서 水晶瓶에 奉安된 淡紅色舍利單은 別途寶器에 奉安하여 元舍利孔에 納品하기로 決定하며 第五層發見 立佛像도 寺院側은 原狀奉納을 主張하였으나 結局 原形의 立佛像을 模造納品으로 決定 하야 이 模造立佛製作에 時日이 걸린 것이다. 이 月餘의 空間中에는 施工者側에서 原石을 가져다가 補完한 塔材를 治石한 것이 該當 石塔蓋石의 尺數에 未達해서 再次 서울에서 石材를 運搬하여 治石하는 데에 이 空間을 利用하게 되었다.

#### 四

解體와 實測으로 報告가 終了한 것이나 復元作業이 此後에 必要할가 하여 적어둔다. 먼저 地臺石을 除去한 後에 地下 一m 原土까지 파내려 가 보니 雜石과 진흙으로 空地를 메웠으며 塔中心點에서 地臺外側에 一m

程度擴張 除土해 보니 石塔의 重壓을 防止하던 外廓石이 北西南에 몇개 가 남았으나 東側에는 全無하였다. 塔積心石三個를 除去한 後外廓石을 基準하고 內側除土空地에 네목도 或은 두목도의 巨石들을 配列한 後 强灰다짐을 하여서 將次地臺石을 設置할 높이에서 充填한 後에 塔中心點을 八角地臺石中心과 一致시키고 符號는 石材를 基壇部에서 부터 組立하였는데 下基壇眼象中臺石에 北側三區의 眼象石이 破損한 것 代身 新造하여 補充하였다. 組立할 때에는 下基壇中石 下基壇의 第一·第二甲石과 上基壇中石、上基壇第二·第一甲石 등의 中央空地는 진흙대 신에 强灰를 넣고 堅固하게 다졌다.

다음 塔身部에 있어서는 石塔元石材들을 그대로 再使用하였으므로 不得已 缺裂된 石材를 第一層蓋石二片과 第二層蓋石一個、第六層蓋石一個、第九層蓋石一個 등 四處 五個石만은 新造蓋石으로 代替시켰다.

塔蓋石 八角귀에 裝飾된 風鐸도 그전 것을 될 수 있는 限 달되 不足한 것을 模造風鐸으로 달았는데 大形八、中形一一、小形三〇個이다. 이 小形風鐸三〇個 新造分에는 寶蓋內側에 없어진 八個도 包含하여 있다.

그리고 第一層塔身上面에는 舍利十四顆를 奉安하는데 있어서 新造된 寶器는 다음과 같다.

### 1、純金製舍利瓶

高四·二cm 蓋一·九cm

身高三·三cm 口徑一·七cm

中幅徑二·七cm(兩二分重)

### 2、純金製舍利盒

總高五·八cm 盒底子徑四cm

身高三·五cm 身徑六cm

蓋高二·八cm 徑六·一cm(一兩半重)

### 3、純金製香盒

四角幅四·四cm×四·七cm

厚一·八cm 下身一·二cm 上身〇·九cm

### 4、銀製外函(三兩〇八五重)

高一〇·二cm 下身八·〇cm 徑一一·四cm

器底子徑四·八cm 蓋徑一一·七cm 高二·五cm

### 5、銀製緣起文板

徑一九·三cm 原〇·一五cm

銘文의 上下左右幅 一三·六cm×一三·七cm

字徑〇·六—〇·九cm

### 6、純金製世尊全身舍利經牌

長四·六×幅一·六cm 厚〇·一五cm

### 7、純金製香爐

全高四·九cm 上徑三·六cm 下徑三·九cm

口緣部幅〇·六cm

以上 新造된 物品을 舍利孔에 奉納하기 前에 包裝한 順次를 보면 다음과 같다.

純金舍利瓶에 淡紅色舍利十四顆를 넣고 白紙로 막고 또 白紙로 瓶을 封後 純金 四角香盒에는 前日에 나왔던 粉末香을 넣고 蓋封하며 純金香爐에도 香粉을 채웠다. 그런 後에 銀製外函에 純金舍利函을 넣고 純金盒內에는 다시 純金舍利瓶 純金舍利經牌 등을, 銀製緣起板은 銀製外函下에, 純金香爐는 銀製外函前에 두되 椶로 이들 物品을 包裝하되 空隙에는 香木으로 補充하였다(舍利孔에 納品한 時日은 十月八日午前十一時頃이다). 納品이 끝난 후 元來에 덮었던 銅板蓋로 前과 같이 덮고 簧을 끊어 부어 固着시켰다.

이 모든 金銀製寶器들은 江陵市內 佛信徒의 自進誠意에서 만드려졌다 는 張任持의 말이다.

다음 第五層蓋石上面에 奉安된 純金立佛像과 銀製鍍金板이며 黃銅製 四角函이 서울特志信徒에 의해 製作되었다 한다. 物目과 寸法은 다음과 같다.

### 1、黃銅四角函 長一一·二cm×一一·五cm

高一·二·五cm 厚〇·三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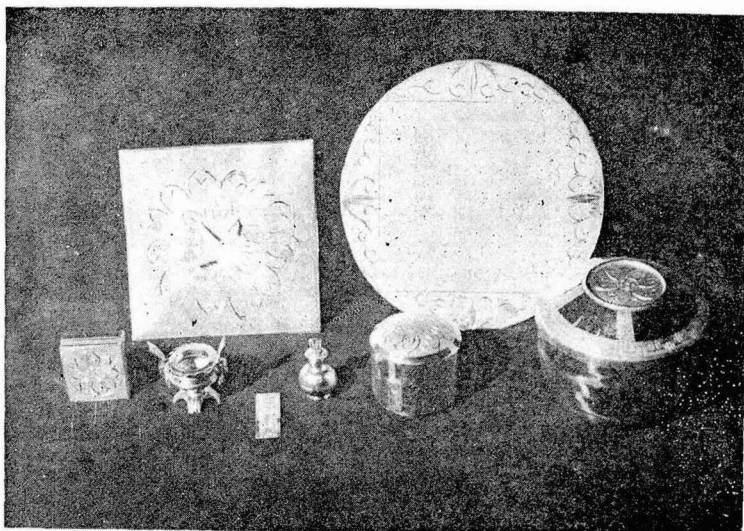


圖 3. 新造 奉安 諸遺物

- 2、純金立佛像 總高一〇・二cm
- 3、銀製鍍金佛座 八菱內에 蓮花紋을 刻하며 立佛은 蓮花子房에 세우게 되었다.
- 蓮花紋右側에는「佛紀二九八八年」辛亥九月日」左側에는「施主趙重勳」金貞」

中間에는「兩主」라 陰刻되고 蓮花紋右側에 右에서 左로「正金」「五兩」「五分」의 刻字가 있는데 字徑〇・八一〇・三cm이다. 八菱이 板은 直徑一〇・六~八cm 厚〇・二cm 蓮花瓣까지의 厚〇・七cm이다. 이 銀製鍍金佛座에 立佛을 奉安後 黃銅函에 納入하고 나서 塔蓋孔에 納品後에 鉛水로 蓋石上面과 같이 注鉛하였다(奉安日은 十一月十八日午後三時四十分)

相輪部 寶蓋에는 牧丹透彫七處를 補修하며 小風鐸을 內側에 新造하여 달았고 竹節鑰管이 破裂한 部分은 修理하여 再使用하며 龍車와 寶珠에 彈痕도 修理 再使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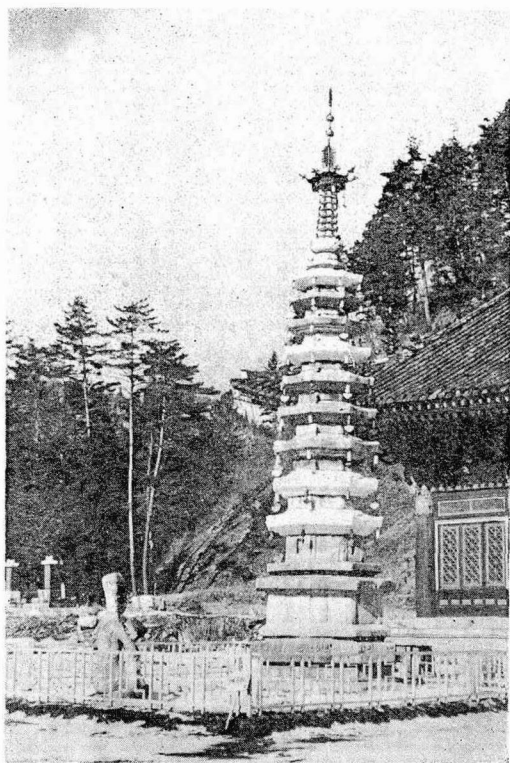


圖 4. 完工된 石塔

〈附添〉

1、藥王坐像考

八角屋蓋石 한 개가 餘分이 있어서 大雄殿 문턱에서 塔中心點까지의 距里를 塔南方 同距里地點에 拜禮石代用으로 뒤집어서 設置하였. 塔前 藥王菩薩像이 東側에 비스듬이 斜臥한 것을 이번이 正立하여 두다.

藥王菩薩像은「寶物 第一三九號 月精寺 石造菩薩坐像」名稱으로 指定된 遺物인데 現在 圓座에 左膝을 세우고 右膝은 臀下에 과고 胸前에 兩手는 무엇을 把握한 形狀이다. 主먹을 친 五指中央에는 小孔 直徑二cm 深一二cm가 水平위로 若干 上向해서 뚫여 있고 下臍에 該當한 곳에도 大豆大의 小孔이 얇게 파져 있다. 또 頭上에는 前面頭上左右에 各一孔(所缺)과 左右頭에 各上中下 三段으로 下에 三所 中에 三所, 上에 二所 小豆大의 孔이 있음은 冠飾에 必要하였던 것으로 推測한다. 坐像을 正立할 때 圓座 밑을 보니 홀륭한 二重蓮花座인 것을 알겠고 이 蓮座가 龜

裂이 나자 菩薩像과 蓮座를 鐵心으로 固定시키고 시멘트로 바른 것이 確實하였다. 月精寺事蹟 信孝居士親見類五聖事蹟을 보면 塔前菩薩은 名稱이 藥王이고 香爐를 塔을 向해서 있다 하였고 金剛淵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塔前有藥王菩薩石像 手捧香爐向塔而跪 古老相傳云 是石像 從寺南金剛淵而湧出

그러나 塔前에는 石燈이 配置한다는 것이 常例로써 이 菩薩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香爐가 아니고 주먹에 있는 孔穴의 方向과 臍에 있는 小孔을 보아서 分明히 燈明의 竿을 잡았던 것이 아닐까 思料되며 夜光菩薩이 藥王菩薩로 記錄한 것이 아닌가 하며 지금도 야광보살이라 通稱하는 것이다.

## 2. 信孝居士考

信孝居士親見五類聖事蹟에 보이는 信孝居士는 高麗 때 公州人. 으로 집에 있을 적에 奉母를 極盡히 하였다. 母가 非肉不食함에서 하루는 操弓하고 나서니 五鶴이 있음으로 활을 쏘았으나 一羽가 떨어졌다. 이 羽로 行人을 보니 畜生임에서 自身의 割股로 奉母하며 빈곳에서 흐르는 水를 내(川)에 가서 씻었다. 마침 지나가던 奉使가 川水가 피땀임을 보고 그 根源地를 찾았던 바 居士가 그 事由를 말하니 使臣이 그 事由를 王에게 報告하여 王이 그 孝를 嘉賞하게 알고 有司에게 命하여 米百石을 주어 養母하게 하였다. 居士는 살던 집을 寺院으로 만들고 孝家院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東國輿地勝覽 公州古蹟과 三國史記列傳에는 向德은 熊川州板積鄉사람, 父의 名은 善, 字는 潘吉이다. 向德이 孝順하기로 알려졌다. 天寶十四年乙未에 凶年이 들고 疾病이 겹쳐서 父는 굶고 병들고 母는 등창을 알아서 모두가 濱死지경이었다. 髀肉을 비어서 父에 드리고 母에는 등창을 입으로 빨아서 平安하였다. 鄕司가 州에 州에서는 王에게 報告하여서 王이 租三百斛과 宅一區와 口分田若干을 下賜하며 有司에게 命하여 立石記事하여서 標하였다. 지금 그곳을 孝家里라 한다. 三國遺事 向得舍

知割股供親을 보면 景德王 때 熊川州에 사는 向得舍知가 凶年에 父가 餓死함에 이르니 向得이 割股하여 給養함에서 州人이 그 事緣을 王에게 奏聞하니 景德王이 租五百石을 賞賜하다. 云云

以上の事緣들을 表에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書名	이름	地名	時代	父母關係	事由
信孝居士親見五類聖事蹟	信孝居士	公州	高麗	奉母甚勤	自割股爲其血
三國史記列傳	向德	熊川州板積鄉	新羅(景德王十四年) 天寶十四年乙未	父母飢且病 母又發子(年荒)	多就川而洗 乃割髀肉以食 之又吮母癢皆 致之平安
勝覽公州古蹟	向得舍知	新羅景德王	父幾於餓死(年凶)	割股以給養	
三國遺事	(舍知는 十三級官)				
報告者	下賜物	里名	其他		
奉使가 錄其事聞于王	嘉其孝懇 命有司令給捨家爲院 未趨年一百石以爲養母家因名孝家	操弓而出見五鶴射之鶴皆飛去唯落一羽	命有司立碑記事		
鄕司는 州에 州는 王	賜租三百斛宅一區、口人號其他云考	家里			
州人이 具事奏聞	分田若干				
	賜租五百石				

이 表에서 共通된 點을 摘出하면 公州사람이라는 것과 父母를 孝로 奉養하였는데 割股한 것, 王에 報告하여서 王이 米穀을 下賜한 點이다. 그렇다면 信孝居士라는 人物은 向德의 佛敎名인 것을 알겠고 高麗人이라는 것은 新羅사람의 誤記인 것을 알겠다. 現在 公州郡 鷄龍面 巢鶴里 向孝浦部落에는 向德의 傳說과 碑를 내에 가서 시켰다는 血痕내(川)가 있고 向德이 살았던 집터에는 向德이 심었다하는 槐木一株가 있다. 그리고 李朝英祖十七년에 立碑한 碑文에는 前面에

「允矣孝子 克全彝性 既剖其股亦厥吮 王庸是嘉 爾田爾宅 地以人名 百世不泐」

이라하며 後面에는

唐天寶十四年乙未旌閭後九百八十七年

辛酉自里中立

方伯 趙榮國銘

通判 李德顯書

榮廷庫直 吳莫立

이라 하였다.

### 3、無染大士碑

浮屠田에 無染國師의 碑가 있다. 前面에는 「師無染大士之□」、後面에 「次丁亥六月日立」의 銘文이 있다. 僧侶口傳에 의하면 無染國師가 東臺에 居하고 弟子九鼎祖師는 西臺에 있었다는 것이다. 九鼎祖師의 俗名은 詢父라 하며 麻布商을 하는데 江陵에서 오다가 大關嶺에서 無染國師를 만나서 饒飢를 請하나 無染國師가 말없이 한동안 直立不動한 후에 말하기를 吾身에 數 많은 衆生(飢)을 요기시키기 爲해서 서 있었다는 것이다.

悟道頌(九鼎祖師詩)

塵塵利利法王身 草鞋豈非天真佛

方知自性元清淨 山間大地是空義

(以上 東台 寬懷스님 談)

### 4、月精寺重建事蹟碑片

月精寺事務室 옆 倉庫앞에 大理石製 碑片이 있다. 이 碑片은 全碑의 左側部에 該當한 것으로 文字가 남은 것은 右에서 一行 一字「能」、二行에 「文者」、三行에 「參知李彙普述」(字徑 二·八 cm)이 있을 뿐이며 碑厚 一四 cm 碑左側 長 四四 cm 上殘部 六 cm 下殘部 一五 cm 인데 이 碑片은 朝鮮金石總覽下 月精寺重建事蹟碑인 것을 알겠다. 日政時代 月精寺에 있던 民間人 文某가 故意로 破壞하였다는 것을 現事務員 朴某에게서 들었다.

# 高靈良田洞岩畫調査略報

— 石器와 岩畫遺蹟을 中心으로 —

李 殷 昌

## 一、序 說

### 二、遺蹟概況

#### 1、石器遺蹟

#### 2、岩畫遺蹟

#### 三、良田洞 先史文化的 性格

#### 四、餘 說

## 一、序 說

慶尙北道 高靈郡 開津面 良田洞의 石器遺蹟과 岩畫遺蹟을 調査한 바 있다. 一九七一年 一月에 良田洞에 居住하고 있는 曹龍贊(六〇歲)農業)氏가 嶺南大學校 博物館에 直接 찾아 와서 良田洞 遺蹟狀況을 말하고 한번 이곳 調査를 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였다. 그리하여 二月初에 筆者는 曹龍贊氏의 인도를 받아 現地를 豫備調査하였다. 이때 意外로 良田洞 石器遺蹟에서 많은 土器片과 石器를 採集하여 이곳 石器文化樣相을 大略 밝힐 수 있었고 한편 良田洞 앞터(卵岬)部落 岩面에서 高古한 岩畫를 發見함에 이르러 크게 놀랐고 한편으로는 크게 感嘆한 바 있다.